

지역 문화 콘텐츠 연구 활성화 · 생활 옹기 저변 확대

전북 무형문화재 이현배 옹기장, 전북대에 전통 생활 옹기 2점 기증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성규)이 최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7호 이현배 옹기장으로부터 전통 생활 옹기 2점을 기증받았다.

11일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따르면 이현배 옹기장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손내옹기를 전한에 뿐만 아니라 전통 생활 옹기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기증 역시 전통 옹기 저변 확대에 대한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옹기장은 지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연구 활성화와 전통 생활 옹기에 대한 저변 확대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전통 옹기가 사라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생활 속으로 파고 드는 옹기문화를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옹기의 탄력적인 적응은 옹기 제작에 그대로 반영되어 환경과 가족 수 대비 크기, 용량, 성격, 디자인 결정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샐프트으로 제작된 옹기는 박물관에 소장된 전통 옹기와는 구별되며, 시대를 달리하는 옹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대적 생활감각과 예술적 의미를 보여준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최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7호 이현배 옹기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전통 생활 옹기 2점을 기증받았다.

한편, 전북대 박물관은 이현배 옹기장의 작품 기증을 통해 오는 여름방학을 전후해 옹기 테마전을 열 계획이다.

테마전은 옹기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서 옹기의 미감(美感)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진안 성수면, 충훈탑 광장 꽃잔디 4000본 심어

진안 성수면(면장 이해석)은 11일 주민자치위원회, 노인일자리, 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훈탑 광장에 꽃잔디 4,000본을 심었다.

또한 성수면은 진안군청 환경선포장에서 편지, 비ول리 각 1,500본을 분양받아 인생쉼터에 식재해 향기로운 봄 풋이 만발한 성수면 소재지로 가꿀 계획이다.

이해석 성수면장은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주민자치위원과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충훈탑 광장에 꽃을 식재하여 면민들이 나라를 위해 순국한 호국 영령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 안천면 행정복지센터, 알록달록 꽃길 조성

진안 안천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정홍기)는 지난 10일 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알록달록 꽃길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각 기관 사회단체장 및 주민자치위원, 의용소방대, 안전 119 안전센터, 우체국, 부녀회, 면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안천면 구도로 옛길 도로변 풀 담 쌓기(500m) 및 편지, 비올리, 철쭉, 꽃잔디 등 2만 포기를 심었다.

안천면은 이번 꽃길 조성을 통해 오는 28일 열리는 제44회 안천면민의 날 화합행사에 지역면민과 안천면을 찾는 많은 방문객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힐링 꽃길을 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김제경찰서, 스쿨존내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교육

김제경찰서(서장 박후기)는 지난 10일 오전 9시 50분 금구면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서다 보다-걷다! 스쿨존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청운초등학교 교육은 지난 3월 개학을 맞아 청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개 김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재까지 총 1,237여명의 어린이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있다.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은 스쿨존내 어린이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건너는 3가지 방법(서다, 보다, 걷다)과 무단횡단의 위험성, 어간 보행시 밝은옷 착용 중요성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30여분의 교육진행 중, 아이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용품 ‘교통안전 물병·사탕’ 등을 배부하며 효과를 증진시키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서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대통령명의 증서 전수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지난 10일 월남참전유공자 양재일남의 대통령명의 증서 전수식을 가졌다.

증서를 수여받은 양재일 남(군산시 거주)은 “월남에서 전우들과 함께한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신다며, 늦게나마 명예를 되찾게 해준 국가보훈처에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자녀들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다.”며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자랑스러워 한후 국가유공자를 위해 도울 일이 생기면 먼저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증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항구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고 있다.”며, “미처 등록되지 못한 참전유공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분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전라감영이야기’

저소득층 어르신 20여명 초청 중식 대접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동장 박지순) 전라감영이야기(대표 강혜자)에서는 지난 10일 중앙동 거주 노인들을 초청하여 중식을 대접했다.

이날 중식 대접에는 중앙동 관내 형편이 어려운 노인 20명이 초청되었으며, 이같은 선행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마다 시행해 오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라감영이야기 강혜자 대표는 “외롭게 노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어르신들이 다함께 모여 즐겁게 어울리시는 모습을 봄니, 작은 정성이나마 준비한 것이 보람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농어촌공 정읍, 상반기 운영대의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11일 2018년 상반기 운영대의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2017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농지은행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재해 대책과 원전영농을 위한 양·배수장 기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정동환 지사장은 운영대의원들과의 토의사항에 대하여 유지 관리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지사 직원들은 금년 농업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농어민 서비스향상에 노력하고 영농편의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요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